

지역집중과 계절편중 충남 관광패턴의 극복방안

정삼철 | 충북개발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장

I. 문제제기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에서 정의되고 있는 패턴이라는 개념은 일정한 형태나 양식 또는 유형이나 모형, 틀로 순화해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관광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광패턴은 관광객들의 관광수요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관광형태 혹은 관광행위의 일정한 형태나 유형의 흐름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수요 패턴은 항상 일정하게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환경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항상 변화되어 새로운 패턴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상황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광수요패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관광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변화의 트렌드나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에 적합하고 유효한 정책전략을 끊임없이 강구해 나가려는 부단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협소한 국토면적에 한정된 관광자원기반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지역적으로 집중되어진 관광이용 패턴은 국토 및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계절적 편중은 지역관광자원의 과부화로 인한 훼손이나 가치사장 등에 따른 지역자원의 비생산적 활용으로 자원경영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정된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충남지역의 관광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 관광객들의 관광수요, 즉 관광객들의 이동형태나 선호하는 관광소비패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관광수요의 변화요인과 그 유형을 살펴보고, 충남지역 관광패턴의 실태 분석과 함께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지역관광패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이나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극복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관광수요 변화의 결정요인

1. 관광수요의 결정요인

관광수요는 관광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나 욕망을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관광활동을 즐기고자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인자를 관광수요 결정인자라고 할 수 있다.

관광수요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 인자의 종류나 영향력은 지역, 국가, 문화, 시기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마디로 관광수요 결정인자를 규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관광수요자인 관광객들의 행위결과로 나타나는 관광수요 패턴은 단순하게 경제적 변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변인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관광수요 연구에서 관광수요변화의 결정인자로 거론되는 주요한 공통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한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느 특정의 관광지에 대한 관광수요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장래의 관광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상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찾아왔는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가, 관광객들은 얼마동안 체재하고 어떤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가, 자주 방문하는 관광의 대상(자원, 시설)은 무엇인가, 관광객들의 소비지출 규모는 어떠한가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McIntosh와 Goldner(1986)에 의하면 어느 특정의 목적지 또는 관광지에 대한 관광수요는 개인의 여행성향 및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연관저항(resistance of the link)의 역수의 함수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관광수요함수는 $D=f(P, R)$ 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인의 여행성향(P)은 관광객의 심리묘사도 인물이나 여행동기,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에 의존하며, 저항(R)은 여러 종류의 목적지의 상대적인 매력도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관광대상지의 관광수요

(D)는 시간적 거리, 경제적 거리, 문화적 거리, 심리적 거리, 목적지의 관광서비스의 비용이나 질, 광고나 판매촉진 그리고 계절성 등과 같은 변수의 함수로 나타나게 된다. 즉, 다시 말해 관광수요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관광수요 패턴도 그에 따라 결정되고 변화된다. 여기에서 관광수요는 여행성향(P)과 저항(R)의 변수 변화에는 비례적으로 변화하지만, 각종 관광수요변수의 변화에는 반비례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로 관광수요 패턴이 표출되는 것이다.

2. 관광수요변화의 결정변수와 이해의 필요성

관광수요의 변화에 따라 관광패턴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관광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관광수요의 변화는 소득수준이나 소득분포, 여가시간, 여행비용, 소비대상자원의 상대가격, 선택자원의 다양성 유무, 잠재수요자의 교육수준, 직업구조, 연령·생애주기의 단계, 사회·문화적 요인,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등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관광수요 행위의 결과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관광패턴이 표출된다.(김사헌, 1997)

한편, 국가 및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관광수요도 관광수요자들인 내국인 혹은 외국인들의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관광패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관광지에 대한 관광패턴을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에 주목하면서 나름대로의 끊임없는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만 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며, 관광목적지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한 국가 혹은 하나의 지역이 관광목적지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광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매력자원으로서 가치경쟁력을 확충해 나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관광수요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더불어서 관광패턴 변화에 주목을 하며, 나름대로의 적절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관광수요의 창출을 도모해 나가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충남관광의 지속적인 수요창출과 함께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충남관광의 수요패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Ⅲ. 충남지역 관광패턴에 대한 실태분석

1. 충남지역 관광이용 패턴분석

1) 충남관광의 지역별 선호도

2005년 국민여행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2006. 6)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국내여행 방문지 선호도 조사에서 충남관광의 선호도는 8.8%의 점유비율을 보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15.7%), 강원(11.2%), 경남(10.4%), 전남(9.5%), 경북(9.5%)에 이어 6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도별 충남관광의 선호도에서는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이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30.8%, 전라권(광주, 전남, 전북)이 13.3%, 경상권(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이 4.5%, 강원권이 4.3%, 제주권이 0.5% 등으로 지역별 선호도에서 충남은 주로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충남지역 숙박여행 선호도는 충청권(68.7%)을 제외하면, 수도권(37.8%)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 충남관광의 여행시기 패턴

충남지역 방문객들의 여행방문 시기는 숙박여행의 경우 주로 주말(상반기: 67.3%, 하반기: 45.4%)에 가장 많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반기는 주중(25.8%)에, 하반기는 휴가/방학(35.1%) 때 주로 다녀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당일여행의 경우에는 주로 주말(상반기: 62.2%, 하반기: 62.7%)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충남방문객들의 주요 관광활동 패턴

한편, 2005년 충남지역 방문객들의 관광여행활동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숙박관광의 경우 상·하반기 모두 자연명승/풍경감상, 휴식/휴양, 수영/ 해변활동, 유홍/오락을 위한 방문활동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당일관광의 경우 상·하반기 모두 자연명승/풍경감상, 휴식/휴양을 위한

〈표1〉 충남지역 방문객들의 여행시기 분석

구 분	숙박 여행 (%)				당일 여행 (%)			
	2005		2004		2005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주 중	25.8	17.2	28.7	17.8	33.2	32.3	25.5	33.5
주 말	67.3	45.4	62.4	46.7	62.2	62.7	68.9	62.3
휴가/방학	1.3	35.1	2.7	33.6	0.3	2.7	0.7	2.7
명 절	0.3	0.6	0.4	0.3	0.3	0.4	-	0.2
연휴/공휴일	5.4	1.7	5.8	1.6	4.0	1.5	4.7	1.3
모름/무응답	-	-	-	0.1	-	0.4	0.2	-
사례수	250	494	250	432	429	516	396	433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6. 6), 2005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

방문이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상반기의 경우는 유흥/오락을 위한 방문이, 하반기에는 수영/해변 활동을 위한 방문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하반기에 방학 또는 휴가시즌이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방문이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2〉 충남방문객들의 주요 관광활동 패턴

구 분	숙박 여행			
	2005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위	자연명승 70.8	자연명승 65.6	자연명승 53.6	자연명승 66.9
2위	휴식/휴양 52.9	휴식/휴양 50.8	휴식/휴양 44.4	휴식/휴양 50.8
3위	수영/해변활동 18.9	수영/해변활동 46.3	수영/해변활동 32.7	수영/해변활동 44.3
4위	유흥/오락 18.1	유흥/오락 16.1	유흥/오락 30.6	유흥/오락 21.2
5위	레저/놀이시설방문 10.1	문화유적지방문 10.1	문화유적지방문 15.0	문화유적지방문 10.2
6위	문화유적지방문 9.9	낚시 9.1	레저/놀이시설방문 11.0	레저/놀이시설방문 9.2
7위	낚시 6.4	레저/놀이시설방문 5.6	온천 8.5	낚시 7.7
구 분	숙박 여행			
	2005		200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1위	자연명승 72.7	자연명승 71.8	자연명승 57.7	자연명승 65.8

2위	휴식/휴양 35.7	휴식/휴양 38.9	휴식/휴양 43.6	휴식/휴양 33.5
3위	유홍/오락 15.6	수영/해변활동 17.9	유홍/오락 18.6	등산/캠핑/하이킹 15.8
4위	수영/해변활동 11.8	등산/캠핑/하이킹 13.1	수영/해변활동 16.6	수영/해변활동 15.6
5위	등산/캠핑/하이킹 11.2	문화유적지방문 12.4	문화유적지방문 12.6	유홍/오락 11.4
6위	문화유적지방문 8.4	유홍/오락 6.1	등산/캠핑/하이킹 10.3	문화유적지방문 7.6
7위	낚시 4.7	온천 4.6	낚시 6.5	온천 6.7

주 : 복수응답 결과임.
 자료 : 한국관광공사(2006. 6), 2005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

4) 충남방문객들의 관광권역별 분포패턴

제3차 및 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르면 충남지역의 관광권역은 크게 해양관광권(태안, 보령, 서천), 백제금강문화관광권(공주, 부여, 논산), 내포문화관광권(서산, 홍성, 당진, 예산), 역사온천관광권(천안, 아산), 대도시근교권(연기, 금산, 계룡) 등 5개의 소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충남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분포를 관광권역별로 살펴보면, 해양관광권이 57.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내포문화관광권 (18.7%), 역사온천관광권(11.7%), 백제금강문화관광권(7.9%), 대도시근교권 (2.9%)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충남지역 방문객들의 경우 해양관광권에 절반이상의 관광객이 편중되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3〉 충남지역 방문객들의 여행시기 분석

구 분	지 역	관광객수(천명)	비 율(%)
해양관광권	태안, 보령, 서천	48,979	57.4
백제금강문화관광권	공주, 부여, 논산	7,953	9.3
내포문화관광권	서산, 홍성, 당진, 예산	15,988	18.7
역사온천관광권	천안, 아산	9,946	11.7
대도시근교권	연기, 금산, 계룡	2,452	2.9
계	-	85,318	100.0

자료 : 1. 충청남도(2006), 충남지역 관광이동 통계자료.
 2. 이인배·최영문(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82쪽 재인용.

5) 충남방문객들의 계절적 관광패턴

충남지역 방문객들의 계절적 관광패턴을 파악해 보기 위하여 충남관광이동통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충남방문객의 계절별 방문성향은 봄철이 16.3%, 여름철이 52.1%, 가을철 19.9%, 겨울철 11.7%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충남지역 관광객들의 방문비율로 볼 때 충남의 계절별 관광이용 패턴은 겨울철을 제외하고, 행락시기인 봄철과 가을철보다는 휴가시기인 여름철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 관광객들의 여름철 집중방문 이용은 주로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05년 85,318천명 방문객 중 해수욕장 이용객이 27,058천명으로 전체관광객의 31.7%가 해수욕장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충남지역의 해수욕장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당진군에 총 36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태안군과 보령시를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홍성군은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중되는 방문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4〉 충남방문객들의 계절별 관광이용 패턴

구 분	기 간	관광객수(명)	소 계(명)	비 율(%)
봄 철	2005년 3월	3,902,511	13,917,858	16.3
	2005년 4월	4,843,142		
	2005년 5월	5,172,205		
여름 철	2005년 6월	4,894,498	44,489,051	52.1
	2005년 7월	15,042,456		
	2005년 8월	24,552,097		
가을 철	2005년 9월	7,256,740	16,947,941	19.9
	2005년 10월	5,852,704		
	2005년 11월	3,838,497		
겨울 철	2005년 12월	3,587,565	9,963,659	11.7
	2005년 1월	3,197,226		
	2005년 2월	3,178,868		
계		85,318,509	85,318,509	100.0

자료 : 1. 충청남도(2006), 충남관광이동통계자료.

2. 이인배·최영문(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83쪽 재인용.

2. 충남관광의 발전과제

앞에서의 이러한 관광수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할 때 충남지역의 관광이용 패턴은 우리나라 전체 관광이용패턴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으로 지역집중과 계절적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서 충남지역 관광이용패턴 특성과 발전과제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지역의 관광객은 내·외국인별로 볼 때 '05년 현재 내국인 관광객이 99.4%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내국인 중심의 관광지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충남관광의 세계명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마련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 관광선호도 측면에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중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방문시기도 숙박·당일관광 모두 주말을 이용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관광활동의 일상화추세에 대응하여 보다 많은 관광방문객 유치와 충남관광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중관광객들을 겨냥한 보다 다각적인 마케팅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충남지역의 관광권역별 이용패턴은 주로 해양관광권과 내포문화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내륙지역의 관광자원 이용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보령, 서산, 태안, 홍성 등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관광패턴을 충남 내륙지역으로 고르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관광수급 정책의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충남지역방문객의 계절별 비중은 주로 여름철에 편중되어 있으며, 행락철인 봄철과 가을철의 방문객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충남관광을 4계절 관광목적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방문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설공간의 개발뿐만 아니라 테마형의 관광코스과 흥미를 촉발할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충남지역의 이러한 관광이용 패턴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지 않는다면 충남관광의 세계화는 물론이지만 지역방문객들의 지역집중과 계절적 편중으로 한정된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교통혼잡과 불편은 물론 특정지역의 오염기증 등으로 인한 자원훼손과 지역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점 등을 유발하여 지속발전이

불가능한 관광지역으로의 추락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지역관광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충남관광의 미래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방문객들의 지역집중과 계절적 편중방문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대안마련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충남관광의 혁신적이고 새로운 발전토대를 마련해 나가려는 창의적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V. 충남관광의 지역집중과 계절편중 극복방안

1. 지역적 관광집중 현상의 극복방안

충남지역 관광객들의 지역적 집중방문 현상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방안은 여러 차원에서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 충남지역의 관광객의 지역집중 현상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관광 연계도로 확충 정비와 관광홍보 전략의 과감한 개선

이제까지 충남지역의 관광홍보전략은 주로 특정지역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해 옴으로써 이들 지역에만 관광객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부터는 이와 같은 관광홍보 전략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충남내륙지역의 또 다른 관광매력이나 자원요소를 보다 집중 부각시켜 나갈 수 있는 홍보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내륙연결도로망의 확충과 정비를 추진하고, 이러한 루트를 관광벨트나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상대적으로 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낮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관광매력 요소자원의 새로운 발굴을 도모하여 집중 부각시켜 나갈 수 있는 홍보마케팅 전략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별 대표브랜드 관광매력시설이나 자원요소 등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홍보토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분산수용 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관광거점별 어트렉션 기능의 전략적 확충 강화

충남관광의 지역집중 현상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양관광권 이외에 다른 관광권에도 특성화된 관광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지역집중을 완화시켜 나가려는 전략적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권역의 특성화 개발과 함께 권역별 관광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어트렉션 기능의 강화를 위한 관광거점 랜드마크시설의 개발이나 거점도시의 전략적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새롭게 조성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나 새로운 도청건설지역을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하여 미래형 관광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관광거점지역간 연계도로망의 특성화개발을 통해 테마형의 관광도로를 조성함으로써 관광접근성의 향상과 매력자원요소의 지역관광명소화 개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네트워크형 테마관광벨트와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특정지역으로의 관광객 집중을 완화하고 분산수용을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이용이 편리한 효과적인 관광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보다 다양한 관광매력 코스의 개발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분포된 자원의 특성에 따라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네트워크형의 테마관광벨트를 조성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매력적인 테마브랜드형 관광코스를 개발 육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관광객이 집중되는 서해안의 해양관광권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크 관광유인루트를 개발하고, 충남과 연결하고 있는 자치단체와의 연계이용망 구축을 통해 지역관광자원의 다차원적인 활용을 통해 관광객들의 집중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전략 혹은 관광클러스터화 전략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 혹은 대전·충북과의 광역관광연계망 구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관광 소외지역의 전략적 개발강화

특정지역으로의 관광객 집중을 완화하고 분산수용을 위해서는 관광소외지역에 대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 내륙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특산물이나 특색 있는 자원발굴을 통한 녹색농촌 관광마을 혹은 테마형의 관광휴양마을, 휴양펜션 빌리지 등과 같은 테마형의 관광마을이나 관광시설자원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지역 방문객들을 분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자원이나 관광매력 콘텐츠 자원의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계절적 관광편중 현상의 극복방안

충남지역 방문객들의 시기적, 계절적 편중은 그간에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 이룩한 해수욕장 중심의 관광상품이 성공을 거두면서 여름철 관광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충남은 여름철에 선호되는 해수욕장과 같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시기적으로 하계 휴가시즌이 이때 시작되어 해수욕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여름철에 집중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충남관광패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다만 특정시기에 너무 과도한 관광객이 집중됨으로써 특정지역에 교통혼란의 초래와 함께 수용능력의 초과에 따른 관광만족도 저하와 자원훼손, 무분별한 바가지 상혼 등장 등으로 인하여 지역관광의 이미지 실추를 가져오기 쉽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에 이러한 계절적 관광편중 현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대안의 마련이 적극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계절적 관광편중 현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적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계절별 테마관광자원의 전략적 개발 접목

충남관광의 계절적 편중성을 극복하고 나아가 4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목적지로서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관광콘텐츠 자원의 개발과 더불어 계절별로 특색 있고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된 관광프로그램 발굴 육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절별로 수용이 가능한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설공간의 개발뿐만 아니라 계절별 관광코스과 더불어 다채로운 관광활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역의 자원분포를 감안하여 계절별로 특성화된 관광드라이브코스를 개발하거나 계절별로 이용이 가능한 매력적인 휴양공간 등의 개발을 전략적으로 모색함으로써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역발상을 통한 해수욕장 활용의 다차원화

여름철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수욕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른 계절에도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관광아이템을 발굴 접목하거나 주변 관광지나 관광자원과 연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겨울바다 갯벌여행, 해수욕장 연날리기 프로그램, 해양온수욕장 개발, 겨울바다 가족캠핑파이어 개최, 해양동굴수족관 건설, 겨울바다 보양식 상품개발 등의 역발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전략적 관광콘텐츠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해수욕장과 같은 해양관광자원이용의 계절적 이용편중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관광자원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3) 가격차별화를 통한 충남관광 그랜드세일 전개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관광수요는 관광자원 및 시설이용에 대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다. 이에 충남관광이 4계절 방문목적지로서의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관광객의 계절별 편중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비수기인 겨울철의 경우는 유희관광자원 및 시설을 이용하여 가격할인을 통한 그랜드세일 마케팅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방문촉진을 유도해 나가는 전략적 마케팅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관광객의 방문이 적은 다른 계절에 보다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수욕장 주변이나 국립공원주변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숙박가격 할인주간 등을 설정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계절별 특성화자원의 발굴 조성 강화

충남지역 관광객들의 계절적 편중을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국적 경쟁력을 가진 매력관광자원이나 시설 확충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충남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에 대한 특성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들 자원이나 시설의 계절적, 시기적 이용패턴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의 관광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계절별 특성화자원 발굴 조성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겨울철과 봄철, 가을철 행락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나 자원시설의 확충을 보다 적극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계절별 방문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관광권역별 혹은 거점관광지별로 테마형의 야간관광명소나 경관 등을 조성하여 주간중심의 관광패턴을 야간시간대까지 연장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관광이용 패턴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관광산업은 21세기 무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이자 무형의 수출산업으로 평가되면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관광수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광수요의 창출과 관광수요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관광경쟁력은 물론이요 관광생명력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무차별적 무한경쟁환경 속에 놓여 있어 보다 새롭고 창조적이며 전략적인 수요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충남관광이 지역집중과 계절적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하드웨어 확충뿐만 아니라 관광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관광콘텐츠의 발굴, 그리고 감동이 담겨 있는 관광휴먼웨어 서비스가 조화롭게 갖추어 지역관광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사현(1997), 관광경제학신론, 일신사.
2. 문화관광부(2001),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3. 이인배(2006), 충남 서해안지역 사이버 관광안내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27집.
4. 이인배·최영문(2006), 충청남도 관광수요 변화분석과 대응과제, 충남발전연구원.
5. 정삼철(2004), 충북관광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분석, 충북개발연구원.
6. 충청남도(2006), 충청남도 제3차 종합계획 수정계획.
7. 충청남도(2006), 충청남도 관광이동통계자료.
8. 한국관광공사(2006.6), 2005 국민여행실태조사 보고서.